

식민지 팽창과 프랑스의 반식민주의, 1870-1914*

-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의 기로에서 -

이 재 원

- I. 머리말
- II.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
- III.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
- IV.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반식민주의
- V. 맺음말

I. 머리말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홉스봄(Eric Hobsbawm)이 '제국의 시대(The Age of Empire)'¹⁾라고 명명한 1875-1914년의 시기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제국의 팽창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점점 더 광신화되는 민족적 자부심과 이웃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욕망의 증대에서 자양분을 받은 산업화된 서구 열강은 1차 원료의 공급과 자국 생산물의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A00064).

1) 에릭 홉스봄, 『제국의 시대』, 김동택 옮김(한길사, 2002). 홉스봄은 부르주아 계급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권력을 얻고 그것을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19세기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설명하면서 '제국의 시대'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배태시킬 수밖에 없었던 모순이 지배한 시대로 규정한다. 홉스봄은 '제국의 시대'가 종결점으로 잡고 있는 1914년이야말로 부르주아를 위해, 그리고 부르주아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이 종말을 고한 시점이자, 저자가 세 권의 책(『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으로 다룬 '장기 19세기'의 종말을 표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메리카 식민지의 상실과 영국의 패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1860년대 멕시코에서의 군사적 개입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위신의 실추, 보불전쟁의 패배로 인한 정치적 위기감은 프랑스 내에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식민정서를 형성케 했으며, 그러한 정서는 '위대한 프랑스'라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문명화 사명을 통한 식민지 구축'이라는 신념들로 나타났다. 계몽주의 시대의 가치와 '자유·평등·우애'를 자신의 신조로 삼으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한 프랑스 제3공화정은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탐색을 바탕으로 식민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²⁾

식민지 팽창과 정복에 대항하여 반식민주의 역시 등장하는데, 영국에 뒤이어 가장 광활한 식민지 영토를 보유했던 식민제국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센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디언들의 운명에 대한 비판(라스 카사스[Las Casas])에 영향을 받은 '선한 야만인(bon sauvage)'에 대한 찬양과 서구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거부(몽테뉴[Montaigne], 루소[Rousseau] 등)가 있었고, 18세기 철학가들에 의한 노예제 비판과 프랑스 혁명기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확장, 식민지 자결권 주장 등은 식민지는 불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하면서 '본국'과의 단절을 이끌어냈던 반식민주의의 전형들이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제국주의 시기에 도,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지속적인 경향으로서의 반식민주의는 사회 곳곳에 존재했으며, 마르크스주의나 기독교주의, 더 나아가 인권과 연계한 보편적 가치를 준거로 삼은 반식민주의는 결국 식민지 시대를 종식시킨 인도차이나전쟁과 알제리전쟁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촉발시켰다.

본 논문은 식민화의 역사나 탈식민화의 역사에 대해 기술한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세기 말부터 프랑스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혹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념운동과 실천운동으로서의 반식민주의에 대해, 특별히 그것을 구현한 인물들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프랑스 반식민

2) 프랑스의 식민지 개발은 19세기말 제3공화국 시대에 본격화되었지만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골격과 그를 둘러싼 논쟁의 구도는 1830년의 알제리 점령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치 일간지 『르 콩스티튀쇼넬(Le Constitutionnel)』은 1930년 7월 11일자 신문에서 "알제리 점령은 세계 문명의 신기원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중, 『아프리카와 흑인의 이미지: 18-19세기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어문화권연구』, 20호(2010), 121-122쪽.

주의의 역사와 계보를 파악하는 데 있다. 프랑스 반식민주의에 대한 연구³⁾는 식민지사 연구에 있어 이 주제가 갖는 특별한 의미-견고한 ‘식민지 공화국’에 저항했던 운동과 이념으로서, 그동안 소홀했던 주변부적인 주제라는 측면에서-와 나름의 학문적 성과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된 분야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식민주의 시대 이후 시대적 맥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반식민주의 운동과 그 경향을 일반적이고 개설적인 수준에서 소개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색을 통해 특별히, 도덕적이고 경제적이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식민주의를 반대한 이들의 주장이 결국은 친식민주의와 합류하게 됨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반식민주의자들의 입장은 식민화에 수반된 원주민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유린, 식민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지, 식민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서구 우월주의와 서구 보편주의에 기반한 ‘문명화 사명’이나 ‘서구적 근대화’에 대한 환상은 식민주의자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반식민주의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제3공화국 하에서 본격적인 해외로의 진출이 시작되는 187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 제국의 기본골격이 형성되는 1914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 식민지 팽창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기이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 정당이나 단체의 입장이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식민지 문화’가 절정에 이르는 전간기 시기는 반식민주의의 역할이나 활동이 미비한 시기였고, 2차 대전 종전 이후의 탈식민화 시기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필자의 논문들⁴⁾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개

3) 프랑스 반식민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는 Charles-Robert Ageron, *L'anticolonialisme en France de 1871 à 1914*(PUF, 1973); Jean-Pierre Biondi et Giles Morin, *Les anticolonialistes(1881-1962)*(Robert Laffont, coll. Pluriel, 1992); Gilles Manceron, *Marianne et les colonies. Une introduction à l'histoire coloniale de la France*(La Découverte, 2003); Claude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Du XVI^e siècle à nos jours*(Armand Colin, 2007); 노서경, 「사르트르의 식민주의 비판」, 『역사와 문화』, 11호(2006); 같은 저자의 「프랑스 식민주의 비판 사학의 동향: 질 망스롱과 클로드 리오취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9호(2008)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반식민주의 관련 저서로 로버트 J.C. 영, 『포스트 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김택현 옮김(박종철출판사, 2005)을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4) 문화적 행위를 통한 반전운동: ‘앙리 마르탱(Henri Martin)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

되었기에 ‘제국의 팽창 시기’에 해당하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연구범위로 한정했다.

본 연구는 식민지 내에서 식민지인들이 주도한 반식민주의 운동이 아니라, 소위 ‘식민지 본국’인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인들에 의해 전개된 반식민주의 운동을 살펴보는 것이다. 소위 ‘제3세계’ 내에서 행해졌던 반식민주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식민지 내부에서 진행된 자유 투쟁과 민족독립운동에 중점을 둔다. 파농(F. Fanon)과 호치민(Ho Chi Minh), 세제르(A. Césaire)와 쟁고르(L. S. Senghor)의 정복에 대한 비타협적인 저항이나 베트남과 알제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개되는 외세의 지배나 주권의 상실에 맞선 반란의 사례는 국내 연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소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식민지 내부가 아니라, 식민지 본국에서 나타나는 반식민주의자들의 활동과 역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프랑스의 반식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서양 제국주의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많은 후속연구를 파생할 수 있을 것이며, 역사학 외에도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제국주의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반식민주의를 크게 세 개의 범주-‘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e républicain),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e socialiste),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반식민주의-로 나누어 그 특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에서는 18세기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이 주창한 공화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반식민주의를 다룬다. 식민지인의 권리의 확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 식민화에 수반된 ‘과도함’과 ‘과오’에 대한 인도주의적 비판 등을 핵심내용으로 삼은 반식민주의가 급진파와 평화주의자, 기독교와 인권연맹 등에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는 식민지 팽창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의한 반식민주의를 말한다. 이 장에서는 식민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중시킨다는 논

와 문화』, 9호(2004. 12), 56-80쪽; 「프랑스 공산당과 베트남의 ‘식민지해방전쟁’, 1945-1954」, 『서양사론』, 83호(2004. 12), 153-174쪽.

리를 펴며 식민주의의 경제적 동기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노동운동가의 입장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언론에 묘사된 반식민주의와 미술과 문학, 학문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민지 팽창에 대한 저항운동과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⁵⁾

II.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

‘식민주의⁶⁾에 반대하는 체제나 입장’으로 정의되는 반식민주의는 원래 기독교에서부터 비롯되었으나, 이후 세속화되어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 ‘종교적인 혹은 무신론적인 사고체계’, ‘계몽주의나 인권 등의 보편적인 기준 혹은 정체성의 파괴와 문화적 다양성의 옹호’ 등과 같이 서로 상반되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념들이나 논리들과 결합했다. 각각의 이념집단과 해석체계는 해외로의 팽창의 지지자와 반대자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분리되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반식민주의 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매우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세 개의 커다란 분류체계로 구분하여 프랑스의 반식민주의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 5) 물론 이러한 구분에는 다분히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반식민주의 사이에는 분명히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공화주의자의 범주에 사회주의자를 위치시킬 수 있고, 사회주의자의 주장에서도 공화주의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언론인, 문필가, 예술인 가운데는 ‘공화주의적’ 혹은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2장과 3장은 반식민주의의 성격과 내용에 따른 구분이며, 4장은 반식민주의가 어떤 범주와 계층에서 표출되었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2장과 3장이 주로 정계와 이와 관련된 사회단체에서의 주장이라면, 4장은 언론까지 포함한 문화계에서의 주장이며, 4장에서는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의 범주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반식민주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에, 이러한 구분이 프랑스의 반식민주의를 어느 정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구분이라 생각한다.
- 6) “미개발지역에 정착한 ‘본국(本國)’의 이익을 위하여 미개발지역의 개발을 주장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교의”로서의 식민주의라는 용어는 1895년 프랑스 경제학자 몰리나리(Gustave de Molinari)가 처음으로 사용했으며, 사회학자 루이(Paul Louis)가 1905년 자신의 저서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대중화되었다고 한다. 반식민주의의 경우, 작가이자 시인, 수필가인 페기(Charles Péguy)가 1903년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추정한다.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라는 용어는 해외로의 팽창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의미하여 서로에 대한 경멸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로 다룰 항목은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이다. 이는 1789년 혁명으로부터 탄생한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반식민주의를 의미한다.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평등·우애·인권·생명 등의 자연권 개념을 식민지에도 확장시켜야 한다는 신념하에 자의적인 지배와 폭력, 인권유린을 거부한 사상이나 운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 부류에는 급진파(radicaux)와 평화주의자, 기독교와 인권연맹 등의 활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⁷⁾

자코뱅 전통의 공화주의 이념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라 자처하는 급진당(Parti Radical)은 1881년 8월 7일의 당 강령 안에, 그리고 1885년의 선언서에 식민지 모험과 정복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와 함께 당 일간지인 『라 쥐스티스(La justice)』의 지면과 의회연설을 통해 노예제 폐지를 환영했던 부쉬뒤론(Bouches-du-Rhône) 출신의 급진당 의원 펠레탕(Camille Pelletan)이 이러한 저항운동에서 빛을 받았다. 그는 ‘튀니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톤킨(Tonkin)과 마다가스카르의 전쟁비용 승인에 반대하여, 1892년 수단과 다호메(Dahomey, 베냉) 정복과 1895년 마다가스카르 원정을 비난하며 국회에서 발언했다.

대포로 강요하는 이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 **열등한 인종**은 당신들과 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가? 당신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땅을 침략했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을 문명화시키지 않았다.⁸⁾

제3공화국 초기에 식민지 팽창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던 공화파 의원 쥘 페리(Jules Ferry)는 1885년 7월 28일 식민지 확장의 정당성과 동기에 관한 총체적인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페리는 수상 직에서 물러난 후 보주(Vosges) 지역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행한 이날 의회연설에서, 정치가이자 북아프리카 전문 역사가인 쥘리앙(Charles-André Julien)의 표현을 빌리자

- 7) 공화파 내부에서도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며, 서로 분열되는 양상도 보였다. 강베타(Léon Gambetta)와 페리(Jules Ferry)가 이끄는 온건파 또는 ‘기회주의자들(opportunistes)’, 보다 좌측에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를 따라서 자코뱅 전통의 계승자이기를 바라는 ‘급진파(radicaux)’, 그리고 공화주의자들은 그들의 좌측 끝에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니엘 리비에르, 『프랑스의 역사』, 최갑수 옮김(까치, 1998), 342쪽.
- 8) 1892년 4월 11일 의회연설. Charles-Robert Ageron, *L'anticolonialisme en France de 1871 à 1914*(PUF, 1973), pp. 61-62.

면, ‘첫 번째 제국주의 성명’을 발표했다.

식민화는 1차 원료를 보장해주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자본의 유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남고 싶으면 식민지 제국을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월한 인종은 열등 인종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⁹⁾

이러한 논지에 맞서 펠르탕은 “(페리로부터) 우리는 무력으로 야만족들을 문명화시키는 우월한 인종에 부과된 의무에 대해 들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포로도 없고, 폭격을 받아 파괴된 도시만이 존재하는 무자비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급진파의 상징적인 인물로 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 수상직을 역임한 클레망소는 “식민지에 무엇을 가져다주기보다는 프랑스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이익에 반하는 식민화에 수반된 재정적 부담을 거부했다.¹⁰⁾ 클레망소는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야만국가에 문명을 수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페리의 인종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우등인종, 열등인종, 말하기는 쉽다. 내 경우 독일의 학자들이 프랑스인들이 열등인종이기 때문에 보불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보며 (인종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 ... 프랑스 혁명 이후의 프랑스 역사는 이러한 인종주의적 주장에 맞선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저항의 역사이다. 열등한 국가들에 대한 우월한 국가들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 문명이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폭력을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¹¹⁾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인종주의에 대한 거부로 소개하지만 문제는 훨씬 복잡하다. 왜냐하면 클레망소는 아시아 문명에 대해서는 찬양했지만, 인류학자들이 ‘열등인종’으로 분류한 흑인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인용한 펠르탕의 경우에도 식민지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전제한 가운데 그들에 대한 권리의 신장을 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같이 19세기 과학적 객관성의 탈을 쓰고 한층 강화된 흑인(혹은 식민

9) 1885년 7월 28일 의회에서의 연설. Claude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Du XVI^e siècle à nos jours*(Armand Colin, 2007), p. 70.

10) *Ibid.*

11) 1885년 7월 30일 의회연설. *Ibid.*, p. 71.

지인)의 인종적 열등성이라는 관념은 급진파 공화주의자들에게도 내재해 있었다. 물론 그들은 인종차별적이고 모욕적이며 때로는 범죄적인 행동과 여론에 대해서는 경계했지만,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존재한다는 사고에는 동조했다.¹²⁾

의회에서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격론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팽창은 진행되고 있었다. 강력한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즉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광대한 영토에 ‘우월한 문명’의 빛을 전파한다는 기본적인 동기 하에 1880년대 프랑스는 콩고, 니제르, 튀니지, 통킹 등지에 자리를 잡았다. 1890년에 이르러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와 마다가스카르 전체, 북아프리카 일부를 지배했고 이미 모로코에도 관심을 보였다. 식민지 군대(1893)와 식민지부(ministère des Colonies, 1894)가 창설되어 프랑스는 식민정복을 서서히 완성해갈 수 있었다.

19세기 말 급진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그들의 반식민주의적 성향은 조금씩 퇴색해갔다. ‘가장 위대한 프랑스(La plus grande France)’라는 ‘국가적 대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완화되고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894-1895년에 마다가스카르 점령에 반대했던 두메르그(Gaston Doumergue)는 1902년 식민지부 장관이 되었고, 두메르(Paul Doumer)와 마다가스카르 총독을 지낸 오거뇌르(Victor Augagneur), 1900년부터 1906년까지 튀니지 주재관을 지내고 이어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피송(Stephen Pichon)과 전반기 제국의 핵심 인물이 된 사로(Albert Sarraut)는 식민지 압력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민족자결의 원칙을 천명하고 식민화의 도덕적 권리를 비판했던 1881년의 급진당 강령의 작성자이기도 했던 펠르탕은 1902년에 해군부 장관이 되어 해외영토의 방어를 위한 소형구축함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클레망소는 1919년 알제리인들을 위한 개혁정책을 시행했을 때 알제리의 유럽인들에게는 반식민주의자로 인식되었지만, 모로코인들이 참패를 경험해야 한

1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더 견고해진 우주와 인간 사회에 대한 진화론적 사고는 프랑스인을 비롯한 모든 서구인에게 문화 사이에는 위계질서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그 가운데는 문화 사이의 위계질서를 인종 사이의 위계질서와 혼용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는 식민화가 근대화된 문명을 전파한다고 믿던 유럽인에게 그들의 지배권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근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Claude Liauzu, *Race et civilisation: l'autre dans la culture occidentale: anthologie critique*(Syros, 1992)와 A. Ruscio, *Le Credo de l'homme blanc*(Bruxelles: Ed. Complexe, 1995)를 참조할 수 있다.

다고 선언하며 1907년 카사블랑카를 점령하였다.

다음으로 평화주의자들의 반식민주의를 언급할 수 있다. 19세기 말 그들의 활동이 활발했고 식민화에 대한 가장 열성적인 반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의 이념적·정치적 분포도에서 평화주의자들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었다. 『유럽합중국(*Les Etats-Unis d'Europe*)』을 기관지로 소유하고 있는 ‘평화와 자유 국제연맹(La Ligue internationale de la paix et de la liberté)’은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분쟁이 발발했을 때 벨기에 국왕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에티오피아인들과 쿠바인들의 독립을 지지하며 “그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포기하고 독일을 용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¹³⁾

‘평화의 친구 프랑스협회(La Société française des amis de la paix)’, ‘평화협회(Société de la paix)’, 그리고 같은 이름의 잡지 역시 비슷한 논지를 전개해나갔다. 센(Seine)도 공화파 의원으로 여섯 차례나 재선에 성공한 바로데(Désiré Barodet)¹⁴⁾는 “이러한 정복활동은 결코 정복자에게 유리하지도 않고, 결정적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는 미래의 독립전쟁의 씨앗이 될 것이다”¹⁵⁾라고 선언했으며, 식민지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식민지에 대한 세계 일주를 감행한 변호사이자 극좌파 의원인 페랭(Georges Perin)은 1885년 12월 23일 의회연설에서 식민화의 부당함과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위협을 상기시켰다.¹⁶⁾

이러한 사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파시(Frédéric Passy)일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그는 인도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식민지 문제에 개입했다.

당신의 군인들에 의해 침략당한 영토들이 있다. 그 영토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이들의 삶 자체이고, 육체이며 피이다. 그곳은 그들에게는 알자스이고 로렌이다. … 이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진전되고, (우리의) 언어를 받아들이게 하

13) *Les Etats-Unis d'Europe*, 1896년 2월호.

14) 1890년 바로데(Désiré Barodet)는 국민들이 당선 의원들의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할 수 있게 입후보자의 정견집 발간을 제안했다. 이 정견집을 바로데(Barodet)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국회에서 발간되며 일반인들도 참조할 수 있다.

15) *Société de la paix*, 1895년 11월호.

16) “우리가 주권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인 중국은 그 권리를 위해 우리에게 대항해 싸울 것이며, 전쟁을 위해 준비했다고 믿는 그날을 잊지 않을 것이다.”

고, (우리의) 이념을 수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프랑스인과 알자스인의 이름으로 유럽에서의 정복에 대한 범죄와 과오에 반대하여 소리 높여 그리고 열정적으로 저항하면서, 당신들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할 권리 뿐 아니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¹⁷⁾

이러한 주장은 분명히 식민지 정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867년부터 파시는 ‘영구평화국제연맹(Ligue internationale et permanente de la paix)’, ‘평화의 친구협회(Société des amis de la paix)’, ‘국가 간 조정 프랑스협회(Société française pour l'arbitrage entre nations)’ 등 여러 평화주의 협회의 창설에 관여했다. 1881년과 1885년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파시는 쥘 페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1889년 그는 9개국의 의원들로, 전간기에는 60개국의 의원들로 구성된 ‘양원합동협회(Union interparlementaire)’를 창설하였으며, 1901년 뒤낭(Henri Dunant)과 동시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인도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반식민주의 평화주의자의 범주에는 작가이자 제2공화정 시기 정부위원을 역임했고, 식민지 정책을 야만적인 폭력체제로 규정했으며, 1881년의 튀니지 점령과 1884년의 수단 점령을 거부했던 모랭(A. S. Morin)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사명 앞에서 반식민주의 경향을 가진 가톨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독교인 중에서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반식민주의를 부르짖은 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비올레(Paul Violet)의 경우가 그렇다. 드레퓌스파(dreyfusards)이자 범조인인 그는 식민지 정복에 반대했으며, 인권연맹의 정관을 작성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정부인가회사에 반대하며 마다가스카르 정복과 누벨 칼레도니아의 식민화와 원주민에 대한 약탈행위를 규탄하는 데 앞장섰던 ‘원주민보호위원회(Comité de protection et de défense des indigènes)’를 창설했다. 이 위원회는 종종 평화주의 연맹 혹은 인권연맹과 연합하여 활동했다. 비올레는 또한 1902년 인도차이나의 원주민법에 반대하고, 1905년 콩고에서 자행되고 있는 ‘식민지 약행’을 비난했다.¹⁸⁾

17) 1885년 12월 22일 의회연설에서.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75.

18) *Ibid.*, p. 76.

르 루아(Le Roy) 대주교는 가봉과 관련하여 유럽인의 정착 이후 인구는 감소하고 풍기는 문란해졌으며, 알콜 중독이 만연하고 매춘이 성행했다고 비난했다. '사회적 가톨릭주의(catholicisme social)'의 창시자이자 1893년부터 1924년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르미르(Jules Lemire) 역시 식민주의를 비판했다.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혁명적 사회주의자이자 반교권주의자인 블루아(Léon Bloy)는 페리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쓰레기', 통킹 문제와 관련하여 '강베타(Gambetta)의 역겨운 정부(情夫)'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¹⁹⁾ 블루아는 삽화잡지 『아시에트 오 비르(L'Assiette au beurre)』에서 "이 지옥의 이미지는 이 절망의 제국을 상상하게 한다"²⁰⁾며 동생이 희생되기도 했던 누벨 칼레도니아의 유형(流刑)을 규탄하기도 했다.

아이티(Haïti)에서 태어난 실뱅(Benito Sylvain)은 파리에 정착한 후 『라 프라테르니테(La Fraternité)』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1901년 인간의 권리의 문제를 다룬 『착취의 식민지에서의 원주민 운명(Du sort des indigènes dans les colonies d'exploitation)』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그는 1900년 런던에서 열린 제1회 범아프리카회의에 참석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위원회(Comité oriental et africain)'를 창설했다. 그의 목적은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는 반노예제 회의에 참석했으며, 1905년 로마에서 피부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울 목적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했다. '식민지인의 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 식민화(colonisation émancipatrice)'를 권장기 위해 보편주의와 흑인종에 대한 보호를 연결시키려는 그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당시 유색인종의 자치나 독립에 대한 연설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반식민주의자들의 활동과 선전은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식민지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 반대하며 수많은 위원회가 등장했는데, 이들 위원회 중 1898년 드레뤼스 사건으로부터 창건된 '인권연맹(LDH: Ligue des droits de l'Homme)'은 그 영향력과 참여하는 지식인들의 면모로 인해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 평화주의 협회들과도 관계하며, 중간계층과 지식인을 포함한 프랑스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이 인권단체의 가장 분명한 활

19) *Le Pal*, 1885년 4월 2일자.

20) *L'Assiette au beurre*, 1903년 5월 9일자. 블루아는 자신의 저서 『가난한 자의 피(Le sang du pauvre)』(F. Juven, 1909)에서도 식민지 정복사업과 누벨 칼레도니아 유형을 비판했다.

동은 식민지인들의 보호와 식민화에 수반된 각종 추문들에 대한 고발을 통해 끊임없이 식민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연맹이 탄생한 헤이자, 콩고(Congo)에서 정부인가회사가 설립된 해인 1898년에 막대한 토지를 분양받고 식민지를 철저히 착취한 이 회사들의 권력남용에 대해 비판하며 1905년에는 브라자(Pierre Savorgnan Brazza)²¹⁾가 이끄는 현지 조사사절단을 파견했다. 1905년 인도차이나 문제를 논의한 회의에서도 인권연맹은 "오늘날 우리들의 임무는 아프리카에서의 침묵, 아시아에서의 침묵, 그리고 또 다른 침묵을 깨는 일이다. 인류는 모욕당했고, 우리의 법은 침해당했으며, 원주민들은 증오를 강요당했고,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자행되었다"²²⁾며 식민지 사업을 비난했다. 인도차이나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인권연맹은 일련의 반식민주의 선전을 주도하였으며, 결국 베트남 독립운동가들의 사면과 석방을 가능케 했고, 인권연맹 회장인 프레스장세(Francis de Pressensé)가 조레스(Jean Jaurès)와 함께 식민지인들과의 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회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해외영토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은 1906년 회의는 "인권선언문에 부합되는 정의·평등·우애 체제의 형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점진적으로 식민지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

1905년의 논의와 1906년 회의는 식민지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무의식과 의회의 무관심에 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인권연맹에 있어 식민지 권력은 본질상 부당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식민지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어떠한 실질적인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었다."²³⁾ 하지만 인권연맹은 1913년 3월 24일 브레스트(Brest)의 사회주의자 회의에서 명시했듯이, 식민지로부터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열정적으로 평화라는 대의에 충실한 가운데" 토고와 모로코를 교환하는 문제에 대해 독일과 합의하기도 했다.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는데, 1906년 회의(식민지에서 원주민의 보호문제), 1909년(식민지에서 행해진 과오),

21)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탐험가인 브라자(Brazza)는 오히려 중앙아프리카에 프랑스 식민지 사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된다.

22) *Bulletin officiel de la Ligue*, 1905년 10월, p. 1520.

23) Daniel Hémerly, "Du patriotisme au marxisme: l'immigraton vietnamienne en France de 1926 à 1930", *Mouvement social*, janvier-mars 1975, p. 32.

1912년(모로코 개입에 반대), 1914년(인도차이나 문제), 1924년(북아프리카에서의 정의), 그리고 1931년과 1952년 회의에서만 예정 의제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인권연맹의 활동은 1911년 인도차이나에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제외하고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너무 '사회주의적'이라고 평가된 연맹 회장 프레장세의 입지는 점차 약화되었으며, 1898년부터 1912년까지 사무총장을 역임한 모르하르트(Mathias Morhardt)와 키아르(Pierre Quillard)의 무정부주의적인 입장은 가입회원의 3분의 1의 탈퇴를 야기했다. 인권연맹의 영역은 또한 개인적 차원의 자유의 수호와 연관돼 있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의 결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1902년과 1910년 사이 연맹은 104개의 식민지 관련서류를 다루었는데, 그 중 40%만이 '원주민'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이주 식민자와 자의적 정치의 희생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이미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기부터 정치적 급진주의자들은 식민주의자들에 맞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확장, 그리고 식민지의 자결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인간의 평등에 대한 신념에 기초를 둔 이러한 인도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정치 전통은 원래 유럽의 가치였던 것을 보편적 수준에서 긍정하는 것이었다. 반식민주의를 표방하는 공화주의자들에게도 식민지 사업은 문명화 사명이라는 통념으로 정당화되었다. 그 통념은 지식과 기술과 번영의 명백한 우월함에 기초를 두고 있는 선진적인 프랑스 문화의 이익을 '후진적인' 주민들에게 제공해주겠다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후진적인' 주민들에게까지 프랑스의 정치적 원리를 확장시키려 한 반식민주의자들의 열정은 '공화주의적 식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인지도 모른다.

III.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

반식민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단순히 도덕적 비판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적 이해'라는 이름으로 핵심적인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식민주의의 근본적인 경제적 동기를 언제나 강조했던 소위 마르크스(Karl Marx)의 후계자들, 즉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과, 가장 확실하고 일관성 있는 반식민주의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었던 노동운동가, 그리고 보다 급진적

인 무정부주의자의 입장이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의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다.

파리코뮌의 충격 이후에, 그리고 시급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프랑스 사회주의는 서서히 재형성되었다. 분파 간의 분쟁은 식민지 문제에 대한 사고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다양한 사회주의 운동들이 공화주의자들의 논의를 취하는 데 만족했다. 그들의 비판을 힘의 남용과 범죄, 정치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삼는 문제에 집중하는 가운데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쥘 페리의 경제적 논의-활로의 개척, 자본의 수출, 1차 원료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그들은 식민지 팽창을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하여 논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게드(Jules Guesde)의 프랑스노동당(POF: Parti ouvrier français)이 1880년 처음으로 식민지 문제와 관련한 당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고, 1895년 9월에 개최된 로미(Romilly) 회의에서 당령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식민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라파르그(Paul Lafargue)에 빛진 바가 큰데, 쿠바에서 원주민과 프랑스인 사이의 혼혈로 태어난 그는 프랑스노동당의 이론가였고, 게드의 정신적 지도자였다. 그는 '터무니없고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식민주의의 경제적 동기에 주목하며 반식민주의가 자본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민지에 대한 반대는 경제적 불황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계층의 즉각적인 물질적인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²⁴⁾

프랑스노동당의 설립자인 게드는 수많은 회합을 통해 여론을 집결시킴으로써 식민지 팽창에 따른 약탈과 살인을 끊임없이 외치고 비난했던 유일한 정당의 지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1895년의 로미 회의는 프랑스 사회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식민지 정책이 생산노동자의 피와 재산을 고갈시키며 오로지 유산자 계층의 이익을 확장시키는 가장 추악한 자본주의자의 착취의 형태임을 고려하면서, 식민지 팽창이 문명과 국가의 명예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면서 부패되지 않고 문명화되지 않은 종족의 파괴에 이르게 하고, 식민지 국가에게도 모든 재앙을 야기시킨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프랑스노동당 8차 회의는 전력을 다해 식민지 착취에 반대하며 의식 있는 어떠한 사회주의자도 식민지 원정군과 원정 비용에 대한 법안

24)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p.99-100.

을 가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²⁵⁾

경제적 논의에 더하여, ‘쿠데타 군인들’을 생산해내는 기계, ‘마다가스카르의 도살장’에서처럼 ‘우리 병사와 해군의 시체들’을 매개로 분쟁을 발생시키는 기계인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도 첨가되었다.

유럽의 전쟁 시기는 오늘날 끝났지만 새로운 전쟁들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본가의 전쟁, 우리들의 재산과 피를 대가로 세계 시장을 다투는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 사이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다.²⁶⁾

이러한 입장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오랫동안 프랑스노동당이 의회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게드파’와 혁명적 조합운동가 사이의 긴장 관계는 프랑스노동당이 노동총동맹(CGT: Confédération générale du travail) 산하 다수의 하부조직과 행동수단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당 내에서도 보니에(Charles Bonnier)와 주르드(Jourde) 같은 인물들은 식민지 팽창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노동당은 코트디부아르, 다호메, 니제르의 정복을 용인했던 1893-1894년 시기의 당 기관지 『르 소시알리스트(Le socialiste)』처럼 식민지화 사업에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침묵을 지켰던 ‘애국주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다. 게드파의 보루인 프랑스 북부에서는 식민지 원정을 기념하는 전몰기념비가 작은 마을을 포함하여(Wattrelos, Crois, Loos, Avion) 점차 증가하였으며, 당 출신의 릴(Lille) 시장은 전쟁부 장관의 참여하에 1887년 10월 2일 프랑스령 아프리카 식민제국의 주요 건설자인 페테르브(Louis Faidherbe)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제막하기도 하였다.

라파르그는 1911년 사망하고 당의 이론가 자리는 1905년 『식민주의(Le colonialisme)』를 출간한 폴 루이(Paul Louis)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마르크스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다. 폴 루이는 식민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가중시키고, 전쟁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으며, 점령지에서는 저

25) Jean-Pierre Biondi et Gilles Morin, *Les anticolonialistes(1881-1962)*(Robert Laffont, 1992), p. 60.

26) Jules Guesde, discours au Congrès général des organisations socialistes françaises, 3-8 décembre 1899.

항과 혁명이 급증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주의의 영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차이나와 특히 수단에 대한 프랑스와 영국의 야망은 분명해지며, 이들 지역은 양국의 관계를 끊임없이 악화시킬 것이다.²⁷⁾ ... 적들의 아프리카 정복에 저항함으로써 사회주의는 명예롭게 남을 것이다.²⁸⁾

1905년 통합사회당(SFIO: Section française de l'Internationale ouvrière)의 창당은 프랑스 반식민주의의 발전을 야기했다. 통합사회당은 1896년 제4차 대회 때부터 식민지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제2인터내셔널, 즉 사회주의계 노동자 및 사회주의 단체의 국제적 조직인 국제노동자연맹의 프랑스 지부로 창당되었다.

제2인터내셔널²⁹⁾에서 독일사회민주당과 국제 사민당의 국제적 이론가인 카우츠키(Karl Kautsky)는 식민지 문제를 특별히 군대 안에서의 기생세력의 작품으로 파악했다. 그는 파리에서 열린 1900년 5차 대회에서도 이러한 논지를 주장했다. 그는 ‘진보된 식민지화(colonisation de progrès)’의 개념을 주장한 반 콜(Henri Van Kol)과 맥도널드(Mac Donald),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 등의 입장에 반대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주의가 충돌한 파쇼다(Fachoda) 사건, 중국에서의 의화단 사건, 보어전쟁, ‘프랑스 사회주의 아버지’ 조레스가 강조한 유럽에서의 분쟁의 위험은 1905년부터 식민지 문제를 제2인터내셔널의 중심과제로 부각시켰다. 1904년 암스테르담

27) Paul Louis, *Revue blanche*, 1901년 2월 1일자.

28) Biondi et Morin, *Les anticolonialistes*, p. 76.

29) 1864년 창립된 제1인터내셔널은 완전한 유럽중심주의였다. 선언서는 ‘모든 문명화된 국가들’을 위한 것이었고, ‘생시몽주의자들’을 제외한 사회주의자들은 팽창의 문제나 동방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제1인터내셔널이 결성되기 이전부터 사회주의자들의 유럽중심주의적 사고는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푸리에(Charles Fourier)는 『보편적 통일의 이론(Théorie de l'unité universelle)』 4권(1822-1823)에서 서구의 주도하에 역사는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카베(Etienne Cabet)는 『이카리아 여행(Voyage en Icarie)』(1845) 35장에서 야만적인 세계의 정복은 인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식민지화 체제를 제안했다. 반면에 가장 급진적인 혁명가 중 하나인 퀘르드루아(Ernest Coeurderoy)는 ‘문명화된 세계’에 닥칠 종말에서 ‘희망’을 보았으며(『만세! 혹은 코사크 혁명(Hurrah! ou la Révolution par les Cosaques)』), 단호한 반식민주의자였던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은 『전쟁과 평화(La guerre et la paix)』 2권에서 식민지 제국의 종말을 예언했다.

에서의 6차 대회는 제국주의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민족’에게 인류에 속한 비옥한 토지를 맡기는 것을 반대한 반 콜과 “모든 영토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주장한 다비드(Jacques Louis David), 그리고 “문명화된 민족의 문명화되지 못한 민족에 대한 신탁통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한 베른슈타인의 입장도 동시에 존재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³⁰⁾

프랑스에서 통합사회당은 1907년 낭시(Nancy) 회의를 통해 당시 관심사였던 모로코 문제와 식민지 문제 전반에 대해 크게 다루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폴 루이의 논거가 채택되었다.

프랑스는 식민지의 이익을 모두 독점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식민주의는 프랑스에게 수지맞는 활동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떤 자본가들은 많은 이득을 취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비싸게 지불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사회주의는 폭력적인 정복에 근거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들을 종속시키는 식민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³¹⁾

이러한 태도는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자들이 식민지의 재정적 이익을 의심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식민주의를 반대한 ‘자유주의적 입장’³²⁾과 상통했다. 식민화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비효율성이라는 경제적 이유로 식민지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1907년부터 모로코 문제는 가장 중요한 프랑스의 정치적 현안이 되었다. 모로코를 둘러싼 프랑스와 독일의 패권주의는 두 차례의 모로코 사건(탕헤르[Tanger] 사건과 아가디르[Agadir] 사건)을 통해 충돌했고, ‘식민지에서의 위기’는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특별히 긴박하고 격렬하게 만들었다. 통합사회당(SFIO)에서는 조레스가 당시 모로코 정복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반대자였다. 그는 1881년의 튀니지 정복과 뒤이은 톱킨과 마다가스카르 정복은 승인했는데, 1896년에는 식민지 사업의 긍정적인 형태를 옹호하며 두 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30)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103.

31) Biondi et Morin, *Les anticolonialistes*, p. 82.

32) 이에 대해서는 로버트 J.C. 영, 『포스트식민주의 또는 트리컨티넨탈리즘』, 153-161쪽을 참조하라.

첫째, 다양한 민족의 식민지 경쟁이 그들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 본국 내에서의) 지나친 요구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비난한다. ... 둘째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정복당한 민족 혹은 복종된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인종을 위해 보다 인간적인 처우와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한다.³³⁾

결국 조레스는 식민지 문제의 국제화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파쇼다(Fashoda) 사건과 튀니지와 인도차이나에서의 ‘식민지 추문들’, 그리고 ‘모로코 문제’는 그를 급진적인 입장으로 선화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식민화에 수반한 ‘추잡함, 투기, 폭력’에 분개했는데, 무엇보다 그의 개입을 결정한 주요 동기는 유럽에서의 전쟁의 위험성이었다. “식민지 선전단체의 모로코 정책은 우리를 가장 끔찍한 모험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며, 1911년 11월 4일 카메룬, 토고, 모로코 사이의 교환을 통해 심각한 위기에 종지부를 찍는 프랑스-독일 협정에 찬성했다. 그는 국제적 문제는 국제적 해결책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레스는 1906년부터 1912년까지 의회에서 100여 시간에 걸쳐 34번의 회의와 36번의 투표와 20번의 논의가 있었던 ‘모로코 원정’ 문제에 온전히 집착했다. 하지만 그는 비밀리에 취해진 결정에 대해, 식민지 단체의 활동에 의해 부패해진 의회제도에 대해서는 환상을 갖지 않았다. 그는 또한 통합사회당 신문, 특별히 『르 소시알리스트』를 이 문제에 관여하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알레만(Jean Allemane)의 『르 크리 뒤 피플(Le Cri du peuple)』과 브루스(Paul Brousse)의 『르 프롤레타르(Le prolétaire)』 역시 무척 신중했다. 『르뷰 소시알리스트(Revue socialiste)』는 1908년과 1911년 사이에 모로코 문제와 관련하여 인권연맹 위원장인 프레장세의 단 하나의 기사만을 실었다. 노동총동맹의 『라 부아 뒤 피플(La Voix du peuple)』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발생한 모로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한 알헤시라스(Algésiras) 국제 회의에 대해 전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신문인 『르 리베르테르(Le Libéraire)』는 12개의 기사를 게재하며 사회주의자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고,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열 신문인 『라 게르 소시알(La Guerre sociale)』만이 예외적으로 1907년과 1911년 사이에 지속적인 방식으

33) *La Petite République*, 1896년 5월 17일자.

로 모로코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³⁴⁾

사회주의자와 극좌파의 반식민주의 활동은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났다. 파리코뮌 가담자였던 사회당 의원 바이앙(Eduard Vaillant)은 1905년 모로코와 극동에서의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를 추악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정부를 용인하기보다 총파업과 봉기”를 호소했다. 1907년 그는 프랑스가 모로코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1908년 2월 29일 ‘모로코 함정’에 반대하는 모임에서 6천 명이 참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정된 인원만을 집결시켰다. 1911년의 페스(Fès) 원정, 특히 같은 연도의 아가디르 사건과 이로 인한 프랑스-독일 전쟁 위기 때에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³⁵⁾ 사회주의 사무국(Le Bureau Socialiste)은 모로코 문제를 드물게 의사일정에 포함시켰고, 프랑스-독일 분쟁의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도적인 활동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레스의 반식민주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보인다. 그는 타문화에 대한 시각과 감성에 있어 대부분의 다른 사회주의 지도자들과 구별되었는데, 특별히 아시아 국가에서 새롭게 발흥하는 힘과 ‘뒤쳐진’ 국가의 진보 능력을 인식했다. 그는 변화와 진보의 가능성을 지닌 모로코 문명에 주목했고, 이곳에서 행해지는 열강의 투쟁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폭력적인 정복을 통해 평화적이고 인간적인 진보에의 희망을 짓밟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고, 자유와 독립에 대한 갈망과 권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도처에서 새롭게 추동하는 세력의 존재를 인지했다.

필요한 변화의 능력을 가진, 진보와 발전의 능력을 가진 모로코 문명이 있다. 그곳에 미래의 씨앗과 내가 환영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평화적이고 인간적인 진보에의 희망을 말살하는, 정복의 폭압과 속임수 하에 아프리카 문명을 말살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³⁶⁾

그에게 식민화는 모로코 사회의 발전 능력을 가로막는 퇴보의 요소였다.

34) Liauzu, *L'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119.

35) 1911년 4월 모로코의 수도 페스에서 봉기가 발생하자 프랑스 군대가 출병한다. 독일이 항의하고, 6월에는 스페인의 모로코 출병이 이루어지며, 7월 독일 군함이 아가디르에 입항한다. 같은 해 11월 모로코 협정을 통해 프랑스는 모로코의 보호권을 확보하고 독일은 프랑스령 콩고의 일부를 획득하게 된다.

36) 1912년 6월 28일 의회연설 중.

그는 모로코 상황에 무지한 프랑스인들에 한탄하며 그들에게 무슬림 문명의 위대함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모로코에서의 모험’에 반대하여 조레스는 1903년과 1913년 사이에 의회에서 25번 발언했고, 수많은 관련 기사를 언론에 게재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 의원들과 다른 정당 출신 4명의 의원만이 1912년 7월 14일 보호령 설치에 반대했다. 심지어 통합사회당 내에서도 조레스와 다른 입장이 존재했다. 델리니에르(Lucien Deslinières)는 1912년 『르마룩 소시알리스트(*Le Maroc socialiste*)』에서 ‘사회주의적 식민지화 계획’을 주장했다. 몇몇 문장은 “야비하고 잔인한 본능”에 의해 선동된 “개으르고 예측할 수 없는 원주민”이라는 작가의 인종주의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1913년 뒤마(Charles Dumas)의 저서는 『원주민을 해방하라 혹은 식민지를 포기하라(*Libérez les indigènes ou renoncez aux colonies*)』라는 자극적인 제목에도 불구하고 동화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해 브레스트(Brest)의 사회주의자 회의에서 인권연맹 위원장인 프레장세가 언급했듯이, 사회당은 “단번에 우리가 프랑스의 옛 식민지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우리는 반대로 그곳에 명확하고 근본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³⁷⁾

그렇다면 ‘개혁주의’를 거부한 무정부주의자들은 식민지 문제에 있어 철저하게 비타협적이었으며 완강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무정부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에 비해 더 분명하고 단호한 반식민주의자의 입장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민지 문제는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프랑스 무정부주의 운동의 핵심적 활동가인 그라브(Jean Grave)의 『식민화(*La colonisation*)』라는 제목의 풍자문은 1900년과 1912년에 무정부주의자들의 신문인 『레탕 누보(*Les Temps Nouveaux*)』에 게재되었고, 재판이 인쇄되어 10,000부 발행되었는데, 이는 다른 주제를 다룬 글보다 발행부수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해 총으로 무장한 강도질과 도적질이 결합된 이애국주의와 중상주의의 혼종품인 식민화에 반대하여 일어서야 한다. 식민화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해 계획된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식민화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자이다. … 우리를 놀라게 하고, 역겹게 하는 것은 이러한 파렴치함을 인정하고, 이러한 비열한 행위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어떤 후회도 하

37) Liauzu, *L'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121.

지 않으며, 식민지인을 말살한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³⁸⁾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다른 저작물들은 매우 드문 편이다. 지리학자이면서 프랑스 무정부주의의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르클뤼(Elisée Reclus)³⁹⁾가 서문을 쓴 그라브의 『애국주의와 식민지화(Patriotisme et colonisation)』(1903), 탈라모(Talamo)라는 가명을 쓴 말라토(Charles Malato)의 『누벨 칼레도니아인 이야기(Contes néo-calédoniens)』(1897)와 파리코핀의 핵심인물이었던 루이즈 미셸(Louise Michel)의 『지난생각. 칼레도니아의 추억(Pensées dernières. Souvenirs de Calédonie)』(1887)만이 식민화의 죄악을 비난했다.

반자본주의와 반군국주의, 반애국주의를 연계시키는 것 이외에 무정부주의자들의 특징은 무정부주의와 조합주의를 접목시킨 점인데, 1914년 이전의 노동총동맹(CGT)은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혁명적 조합운동가들의 관심사에서 식민화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 쥘리아르(Jacques Julliard)는 조합운동가 펠루티에(Fernand Pelloutier)에 관한 참고문헌을 소개하면서 식민지 문제와 관련하여 1885년과 1889년의 두 논문만을 인용했다.⁴⁰⁾ 물론 조합운동가들의 교리는 분명했다. 노동총동맹 위원장을 지낸 모나트(Pierre Monatte)는 1907년 2월자 『라 부아 뒤 뫼플』에서 식민화 과정에서 야기된 프랑스의 희생에 대해 비판했다.

우리는 야만인이었다. 프랑스 어머니들의 기억 속에 마다가스카르 땅에서 사망한 7천 명의 자식들, 마다가스카르인의 화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 사망한 이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다. 이 7천 명의 어머니들은 왜 그들의 자식이 죽었는지를 묻는다. 언론은 그녀들의 자식들이 프랑스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죽었다고 대답한다.⁴¹⁾

38) Jean Grave, "La colonisation", *Les Temps nouveaux*, 1912, pp.5-6.

39) 르클뤼(Elisée Reclus)는 정치를 사리사욕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무력을 통한 통치를 규탄하지만, 식민화가 문명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문명을 전파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르클뤼의 입장에 대해서는 Elisée Reclus, *Géographie universelle, l'Afrique*(Librairie Hachette et Cnie, 1886)를 참조하라.

40) Jacques Julliard, *Fernand Pelloutier et les origines du syndicalisme d'action directe*(Seuil, 1971).

41) Ageron,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p.82-83.

1909년부터 1947년까지 노동총동맹 위원장을 지낸 주오(Léon Jouhaux)는 '탐욕스러운 자들'을 공격했다.

기업가, 사업가, 장관, 정치인은 오늘날 그들 앞에 더 이상 과거처럼 조직화되지 않고, 그들의 부정직하고 사악한 행동에 대항하지 못했던 노동계급을 갖고 있지 않다. 오늘날의 노동총동맹 안에 집결된 노동자들은 식민화를 수행하는 사기꾼들의 동족상잔의 계획을 저지할 능력이 있다.⁴²⁾

식민지 정복은 군대의 문제외도 연결되었는데, 무정부주의자들과 노동총동맹은 군(軍)문제를 그들 관심사의 중심부에 위치시켰다. 1848년과 1870년의 혁명적 운동과 파업에 대한 탄압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은 군대를 부르주아지 지배의 수단으로 보았고, 군 수뇌부를 보수주의와 귀족계층의 축소판으로 인식했다.

통킹과 마다가스카르, 모로코의 점령은 징집된 군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907년과 1909년 사이 모로코에서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237명의 프랑스인, 208명의 외국인부대 병사, 336명의 원주민 병사들이었다. 군 하사관들은 자원병과 식민지 병사에게 식민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식민지 사업과 군대에 대한 나쁜 평판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전쟁 시 파업과 불복종을 촉구하는 노동총동맹의 선전활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1907년 랑그독(Languedoc) 지역에서 클레망소 정부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17 연대의 병사들은 포도 재배자들을 진압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들은 몽테위(Montéhus)의 〈17연대에 영광을(Gloire au 17e)〉(1907)이라는 노래를 통해 영웅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튀니지 남쪽 가프사(Gafsa) 지역으로 보낸 정부방침은 식민지 문제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을 강화시켰다. 식민지는 이제 탄압과 추방과 유형의 땅으로 인식되었다. 무정부주의자 다리앙(Georges Darien)의 자서전적인 소설 『죄수부대(Biribi)』(1888)는 이러한 식민지 군대의 모습을 상징하는 대표적 작품이었다. 브뤼앙(Aristid Bruant)의 동명의 노래(1891)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연극으로도 각색되어 1906년부터 앙투안(Antoine) 극장에서 수차례 공연되었다.⁴³⁾

42) Léon Jouhaux, *La Voix du Peuple*, 1911년 7월 9-16일자.

43)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116.

1911년과 1912년에는 하나의 사건이 사회주의적 저항운동을 집결시켰는데, 튀니지에서 유형 중 고문 끝에 사망한 병사 에르누(Aernoult)의 죽음과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의 동료 루세(Rousset)의 투쟁이 그것이다. 노동조합과 언론은 이 사건을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다. 1912년 2월 11일 페르 라셰즈(Père Lachaise)에서 <17연대에 영광을>과 <인터내셔널>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러진 장례식에는 무정부주의를 상징하는 45개의 검은색과 붉은색의 깃발을 따르는 2만 명의 거대한 인파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노동자의 문화 속에서 식민지로의 유형을 통한 ‘죄수 부대(Biribi)’의 희생자들은 주변인이나 범법자가 아니라 군대 명령과 사회적 투쟁의 희생자들로 인식되었다.

군 복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투쟁은 모로코 원정에 대한 저항운동과 맞물리며 1912년과 1913년에 정부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1909년 7-8월 바르셀로나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철도나 항만 점거는 반군국주의 사회주의자인 에르베(Gustave Hervé)가 주목한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살인자들(군인들)은 파리, 브레스트, 툴롱, 세르부르, 로크포르와 수백 개의 도시로부터 출발한다. 당신들, 철도 조합원들이 그들을 실어 나른다! 당신들 선박 조합원들이 그들을 마르세유로부터 카사블랑카로 실어 나른다! 하루에 5수(sous)를 더 받기 위해 당신들은 파업을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살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들의 조합을 화나게 하는 위협을 감내하지는 않는다.⁴⁴⁾

1900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선언서들을 모은 자료집을 보면, 인류전체에 혜택을 베푸는 문명화 모델에 대해 정치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식민지 문제에 정통한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주의의 창시자 조레스는 1903년 의회연설에서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에게 소개된 프랑스 문명이 모로코 체제보다 확실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기에 모로코에 경제적 도덕적 행동을 연장시킬 권리가 있다”⁴⁵⁾고 주장했으며, 작가이자 정치가인 푸르니에르(Eugène Fournière)는 “오늘날 모로코에 개입하기 위한 구실인 문명화 사명은 내일 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44) *La guerre sociale*, 1911년 5월 17-23일자.

45) Biondi et Morin, *Les anticolonialistes*, pp.16-17.

의무가 될 것이다”⁴⁶⁾고 선언했고, 인권연맹 위원장 프레장제는 1913년 브레스트 회의에서 “원주민들은 아직 아동기의 인종”⁴⁷⁾이라며 인종주의에 기반한 서구문명 전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식민주의의 기치 아래 식민화에 대한 저항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 지식인들을 동화시키고자 노력했으며, ‘원주민 민족주의’의 모든 전망을 배제하는 인종간의 형제애를 주장했다.

IV.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반식민주의

그림과 문학작품은 애국주의와 이국정서를 연결시키며 해외영토의 정복과 영광을 수없이 찬미했다. 식민지 예술은 존재했지만 반식민주의 예술이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양학과 ‘원시주의(primitivism)’는 원주민에 대한 동정으로부터 매혹에 이르기까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지지와 후원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감정을 음미하며 이국적인 것을 즐기게 했다. 어떤 작품과 작가의 삶은 전통적인 순응주의에 반대하는, 유행으로부터 살아남은 이 작은 흐름을 가늠하게 한다.

고갱(Paul Gauguin)이 이에 해당하는 인물일 것이다. 페루에서의 어린 시절, 바다로의 여행, 마르티니크와 파나마에서의 삶은 그를 문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프랑스령 타히티(Tahiti)에서 가난과 질병, 딸의 죽음 등으로 힘든 삶을 보내지만,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를 화폭에 담아 그의 예술을 완성시켜 나갔으며, 1901년 타히티 섬 옆의 마르키스 섬(ile Marquises)에 완전히 정착했고, 원주민의 보호자가 되었다. 고갱은 문명 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된 유럽인들이 타히티를 비하하려고 했을 때에는 자신을 야만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에게 대항했다.⁴⁸⁾ 그렇다면 그를 반식민주의 화가로 명명할 수 있을까? 그러기는 힘들 것이다. 그가 정착한 마르키스 섬을 고갱은 ‘죽음의 세계’로 묘사했다.

46) *Ibid.*, p. 17.

47) *Ibid.*

48) 고갱은 스웨덴의 극작가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에게 보낸 편지에 “당신을 고뇌하게 하는 문명 의식! 나에게서 젊음의 혈기를 뜻하는 야만성! ... 당신의 문명화된 의식 세계에서 이브는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여성 혐오자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폴 고갱, 『야만인의 절규』, 강주현 옮김(창해, 2000), 214쪽.

그 성격은 생명도 표정도 없이 용해되어 무가 되고, 무한의 공간에 삼켜져있는 전 자연이다. 그것은 아무런 형상도 갖지 않고, 그 구석구석 깊숙한 곳까지 밤과 침묵에 잠겨어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곳이었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생물의 카오스가 아니라 생명의 카오스요, 원시적인 허무로서 훗날 사람들은 거기서 생긴 생명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죽음의 세계로 부른 것이다.⁴⁹⁾

고갱에게 타이티의 자연은 암흑 또는 죽음을 의미했고, ‘새까맣게’ 묘사된 여성은 흑인성을 암시했다. 그는 근대적 문명세계에 대해 혐오감을 지녔고, 열대지방의 원시적인 생활을 동경하고 찬미했지만, 대부분의 서구인들처럼, 식민지와 식민지인을 철저히 타자로 인식했다. 고갱은 르네상스를 서구 미학의 본질적 세계로 보았으며, 타히티는 고갱 스스로 사용했던 ‘타자성’의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고갱에게 타히티 섬은 서구 르네상스의 예술 세계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미학적 공간이었던 셈이다.⁵⁰⁾

또 다른 ‘동양 취향의 화가(orientaliste)’ 디네(Etienne Dinet)는 1905년 햇빛에 매료되어 알제리 남부 부 사다(Bou Saada)에 정착하고, 1913년 이슬람으로 개종한 프랑스 화가이다.

40년 동안 나는 서구문명이 조금씩 냉혹하게 파괴하는 것들을 주시했다. 충분히 그 세계를 관찰하는 데 거리를 두고 있었기에, 또한 충분히 그 세계를 이해했기에 그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관찰한 유일한 인물은 나라고 말할 수 있다.⁵¹⁾

서구문명의 잔혹성을 비판하며 그 몰락을 예견한 디네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식민주의에 대항한 종교개혁운동이자 정체성 수호운동인 ‘올레마 협회(Association des Oulémas)’로부터 칭송을 받기도 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압델티프 관(Maison Abdeltif) 설립에 기여했으며, 무슬림의 옹호자로서 1차 대전 시기 무슬림 병사들의 신앙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고, 프랑스에 만연한 동방에 대한 무지를 한탄했다. ‘식민지의 치욕 혹은 추악한 식민지 부패’에 반대하며 그는 무슬림의 영성(靈性)을 찬미했고,

49) 폴 고갱,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최경예 옮김(가람기획, 1999), 46쪽.

50) 이종찬, 『열대와 서구: 에텐에서 제국으로』(새물결, 2006), 124쪽.

51) François Pouillon, *Les deux vies d'Etienne Dinet, peintre en islam*(Le Nadir, 1998), p. 150.

알제리에는 유럽과 아메리카와는 달리 인종주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부패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북아프리카를 잃게 될 것이다. ... 우리들의 정책은 이전에 는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한 단계에 이르렀고,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었다. ... 알제리에 정착한 유럽인들의 경우 그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⁵²⁾

식민지 지배에 공조했다고 그를 비난한 알제리 학자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립 후의 알제리로부터 인정받아 그의 이름을 딴 박물관이 건립되기도 하였다.⁵³⁾ 이슬람주의자들은 박물관에 소장된 나체의 그림들 때문에 박물관을 방화했지만, <모하메드의 삶(La vie de Mohammed)>, <선지자 알라(Prophète d'Allah)>, <알라 성전 순례(Pèlerinage à la maison sacrée d'Allah)>와 <서양이 본 동양(L'Orient vu de l'Occident)> 등의 작품들을 통해 디네는 프랑스 언론과 소설,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에 산재해 있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속설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19세기 말 ‘식민지 문학(littérature coloniale)’이라 불리는 장르는 각종 문학상에 의해 분명하게 정의되고, 이론화되고 인정된 분야가 되었다. 이 장르에 속한 대부분의 작품이 팽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데 반해, 가끔은 식민화에 수반된 과도함과 과오에 대해 비판한 작품들도 등장했다. 도르즐레스(Roland Dorgelès)는 노동자의 비참한 삶-수레에 몸을 의지하고 있는 베트남의 인부들, 마른 작은 몸, 마스크 아래 지친 얼굴-을 대가로 얻게 된 통킹의 채탄을 통한 수익에 반대했으며(『고급관리의 길(Sur la route mandarine)』), 다게르쉬(Henri Daguerches)는 『킬로미터 83(Kilomètre 83)』에서 인도차이나의 강제노역과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 묘사했다. 해군 장교였던 파레르(Claude Farrère)에게 있어 인도차이나는 프랑스에서 온 ‘악당들과 무가치한 사람들, 식충들, 소매치기들’의 소굴이었다.

인도차이나를 개척한 이들은 프랑스에서 경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시아 인들은 서구인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며, 그들의 문명은 서양의 문명보다 앞서 있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그들보다 사회적 도덕성에서 앞서야 한다. 우리들 식민자들은 살인자나 도둑이 되

52) *Ibid.*,

53) Hellal Mahmoud Zoubir, *La miniature*(magistère de l'Ecole des Beaux Arts d'Alger, 2001).

지는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⁵⁴⁾

알제리와 튀니지에 세 차례 거주했던 모파상(Guy de Maupassant) 역시 『골루아(Gaulois)』지에 쓴 기사, 기행문, 단편소설 등을 통해 식민지 팽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 나라에 잘 적용되지 못한 진보의 외형, 이들의 정서와 기후,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갑작스럽고 어색한 문명의 느낌 때문에 거북해진다. 그들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관습을 지닌 이 야만인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야만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⁵⁵⁾

『양지에서(Au soleil)』, 『카빌리아(La Kabylie)』, 『촛불(Bougie)』 등의 작품에서도 그는 알제리의 ‘원시적인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사라지는 모습과 착취당하는 모습에 대해 묘사했다.

카빌리아(La Kabylie)는 알제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미지의 식민지 정착민들의 이익을 위해 카빌리아인들의 토지를 몰수한다. 어떻게 몰수하는가? 1헥타르 당 적어도 800프랑의 가치를 갖는 토지를 40프랑만 주고 몰수한다.⁵⁶⁾

하지만 그의 진실은 1킬로미터의 알자스와 로렌 지역을 얻는 대가로 ‘아랍인, 검둥이, 인도인, 중국인, 안남인’들이 사는 수많은 식민지를 비스마르크(Bismarck)에게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원주민 여인과 육체적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정신적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식민지인과 식민지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이들은 원주민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사오 케오(Sao Keo)』(1930)라는 작품에서 빌로테(Pierre Billotey)는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며 라오스인의 순박한 행복을 찬미했으며, 그로슬리에(Georges

54) Claude Farrère, *Les Civilisés*(Librairie Paul Ollendorf, 1905). Cité in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89.

55) *Au soleil in Oeuvres complètes*, cité in Géraldi Leroy, *Batailles d'écrivains. Littérature et politique, 1970-1914*(Armand Colin, 2003), pp. 261-262.

56) Cité in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90.

Groslier)는 『진흙으로 돌아감(*Le retour à l'argile*)』에서 원주민의 ‘변하지 않는 문명’을 찬양했다. 어떤 작가들은 지배당한 사회의 소멸과 옛 문명의 파괴를 안타까워했다. 제롬(Jérôme)과 장 타로(Jean Tharaud)는 1912년에 간행된 『아랍 축제(*La fête arabe*)』에서 무슬림의 삶의 방식을 택했지만, 전통적 문화와 주거지를 파괴하고 외부인들을 위하여 원주민을 쫓아낸 식민화의 현실 앞에서 추방당한 군의관의 삶을 이야기했다.

북아프리카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다. ... 이곳 도처에서 우리들의 관대한 문명 대신에 우리 법의 이름으로 프랑스인과 원주민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야만이 판을 치고 있다. ... 백년 전부터 모든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 싸운 군인들을 제공했던 5백만의 이 아랍인들, 목동들, 농부들, 고통을 감내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적으로, 천민으로 볼 것인가?⁵⁷⁾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학문적 분야에서의 반식민주의도 눈에 띈다. 19세기를 지배했던 학문분과 중 하나인 자연인류학(*anthropologie physique*)은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간유형과 인종의 분류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프리카와 흑인, 그리고 식민지인에 관한 한 19세기의 과학은 인종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강화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다.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을 분류했으며, 우수한 인종의 열등한 인종에 대한 문명화의 의무와 권리를 통해 식민화는 정당화되었고, 식민지 팽창은 유럽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불평등 개념에 대한 반대와 식민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서는 드물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주재 아이티 대사를 역임한 피르맹(Anténor Firmin)의 저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884년 ‘파리인류학협회(Société d'anthropologie de Paris)’에 가입한 그는 『인종의 평등. 긍정적인 인류학(*De l'Egalité de races humaines. Anthropologie positive*)』에서 인종의 열등성에 대한 주장에 반박했다. “모든 인간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권리에 있어 평등한 것처럼 자질에 있어 평등하다.” 공화주의적 전통을 물려받은 그에게 ‘늦거나 뒤쳐진 것’은 교육에 의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었다. 인종적 기준을 경멸한 또 다른 이는 『백인종의 미래. 현대 비관주의 비평(*L'avenir de la race blanche. Critique du pessimisme contemporain*)』에서 ‘인종적 개념의 이론적 취약성’을 분석한 파리에 망명한 러시아 지식인 노

57) *La fête arabe*(Emile-Paul, 1912), pp. 4, 194.

비코우(Jacques Novicow)이다. 그에 따르면 인종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은 불확실했다. 조레스의 친구이자 공산당 기관지 『뤼마니테(L'Humanité)』의 기고가이기도 한 레비브뤼르(Lucien Lévi-Bruhl) 역시 불평등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원초적인 정신구조와 문명화된 정신구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했다.⁵⁸⁾

언론을 통한 반식민주의 선전은 위에서 열거한 그 어떤 매체보다 대중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흥미할 필요가 있다. 1900년 페기(Charles Péguy)에 의해 창간된 『레 카이에 드 라 쾅젠(Le Cahiers de la quinzaine)』은 1906년까지 식민화에 대한 비판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샬레(Félicien Challaye)는 1902년과 1903년 이 격주간 신문에 인도차이나 관련 기사를 두 차례 게재했고, 자바(Java)와 콩고(Congo)에 관련하여 각각 한 차례씩 기사를 게재했다.

몇몇 신랄한 필자는 시사문제를 비판하는 비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독통(Vigné d'Octon)의 경우가 그렇다. 1889년 세네갈에서 군대가 저지른 학살을 목격한 후 해군에서 사임한 이 군의관 출신 인물은 문학과 정치가로서의 경력이 뛰어들었다. 그는 로데브(Lodève, 에로[Hérault]도)에서 식민화의 이론가이자 '프랑스령 아프리카 위원회(Comité de l'Afrique française)' 위원장인 르루아볼리외(Paul Leroy-Beaulieu)에 맞서 1889년부터 1898년까지 선거투쟁을 벌였다. 그의 정치 강령은 “우리 정부를 가장 모험적이고 지각없는,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는” 원정으로 내모는 식민지 사업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들의 피가 척박하고 저주받은 땅을 끊임없이 적시는 우리들의 용맹스러운 해군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기를 희망했다. 식민지 사업의 과오를 비난하는 비방 글 가운데는 플라마리옹(Flammarion) 출판사가 판매를 거부했던, 1911년 간행된 『군대의 영광(La gloire du sabre)』이 있다. 독통은 그 누구보다 식민지에서의 범죄행위를 저주하는 인물로 명성을 날렸다.

가장 신랄하고 유명한 비방문의 저자는 『라 게르 소시알』⁵⁹⁾을 창간한 에르베(Gustave Hervé)이다. 역사 교사 자격증을 가진 그는 『르 피우피우 드론(Le Pioupiou de l'Yonne)』에 ‘더러운 놈에게 깃발을 꽂으라’고 호소한

58)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p. 86-87.

59) 대표적인 반군국주의 신문인 『라 게르 소시알』은 1910년 발간 부수가 6만 부에 이를 정도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신문이었다.

기사로 인해 교직에서 제명되었고, 총 11년의 감옥생활을 했다. 그는 프랑스 병사들에게 모로코인들과 형제처럼 지낼 것을 권고하고, 모로코인들에게는 프랑스 병사들을 죽이라고 선동했다. “힘껏 때려라. 알라(Allah)가 당신들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역시 함께 할 것이다.”⁶⁰⁾ 그는 프랑스인들이 “예전에 당신들의 선민자들이 마다가스카르의 도로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천 명씩 모로코로 가는 도로상에서 죽기를” 원했다.⁶¹⁾

언론은 또한 스타인렌(Théophile Alexandre Steinlen), 반 동정(Van Dongen), 플로레스(Ricardo Florès), 그랑주앙(Jules Grandjouan) 등과 같은 유명 화가들이 식민화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상당수의 풍자만화들을 활용하기도 했다. 들라누아(Aristid Delannoy)는 1908년 7월 17일 『레 줌 뒤 주르(Le Hommes du jour)』에 실린 그의 풍자만화 〈푸주한(Le boucher)〉으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한 하사관이 모로코인들의 피 속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 『아시에트 오 뵈르』에서는 반 동정, 플로레스, 노맹(Bernard Naudin), 그리고 특히 들라누아의 서명 하에 여러 차례 모로코에 관한 삽화를 게재했다. 1903년 12월 5일자, 1906년 1월 27일자(알헤시라스[Algésiras] 국제회의), 1907년 8월 31일자(「모로코를 문명화시킵시다“Civilisons le Maroc”」), 1908년 3월 14일자(「기회의 땅“Terres à galons”」), 1911년 11월 4일자(「보상“Les compensations”」)가 그것이다. 1908년 3월 14일자 신문에서 노맹은 한 병사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감옥에서 탈옥하였을 때 나는 모로코를 문명화시키는 임무를 내게 줄지는 몰랐어!” 들라누아는 모로코인들을 총살시키는 처형자와 그들의 나라를 빼앗는 도적들을 규탄했으며, 아미앵(Amiens)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제르미날(Germinal)』에서 그랑주앙은 깃발 아래 놓인 한 무리의 원주민 시민과 병사의 시체를 묘사했다. 한 프랑스 장군이 이 광경을 배가 나온 자본가에게 보여주며 말하길 “친구여, 깃발이 이놈들 위에 꽂혀 있을 때 금과 같은 가치가 있지.”⁶²⁾ 스타인렌은 『아시에트 오 뵈르』에서 연합한 서구열강이 중국문제를 피 속에서 해결함을 묘사했다.⁶³⁾ 특히 조소(Gustave-Henri Jossot)의 그림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식

60) *La Guerre sociale*, 1907년 12월 4일자.

61) *La Guerre sociale*, 1907년 8월 7일자.

62) No. 101, décembre 1907-janvier 1908, cité in Georges Oved, *La gauche française et le nationalisme marocain(1905-1955)*, t. 1(L'Harmattan, 1984), p. 380.

63) No. 28, 1902년 2월.

민지 모자를 쓴 병사가 그의 상관에게 두 명의 흑인 아이를 총검에 꽂은 모습을 보여주자 상관은 말하길 “두 명을 한꺼번에, 멋진데! 너는 훈장을 받게 될 거야.”⁶⁴⁾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의 반식민주의는 앞선 공화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반식민주의에 비해 보다 격렬하고 적극적인 비판의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이념으로 무장한 정치인과 노동운동가, 사회단체가 상황과 사안에 따라 그들의 입장을 달리하는 것에 비해, 정파와 이념적 논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예술인과 언론은 식민지 팽창에 저항하는 반식민주의적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식민화 사업을 거부했으며, 서구문명에 의해 파괴된 식민지 사회와 착취당하는 식민지인을 동정했고, 인종주의적 사고와 ‘문명우월론’에 기반하여 식민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식민지인을 철저히 타자로 인식했다든지, 식민지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에 공조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프랑스 식민정책에 제동을 걸 정도의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프랑스인들의 무관심을 일깨우고 반식민주의적 입장을 어느 정도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는 모두 철저히 ‘문명’과 연관되었다. 19세기 사상계에서 근대의 핵심적 사고 중 하나인 문명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유럽의 팽창과 정복에 대한 논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문명의 개념은 타자에 대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유럽문화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식민지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경우에도 서구인들의 의식 저변에는 서구와 프랑스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 비서구 세계에 전파될 필요가 있었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서구인들의 신념은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유산이었다. 그것이 ‘문명화 사명(mission civilisatrice)’으로 왜곡되면서 인간의 보편적 평등이라는 혁명적 통념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억압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문명화의 사명을 통

64) “Deux d’un coup ! ... C’est superbe ! Tu auras la croix !”, *Assiette au beurre*, 1902년 12월. Liauzu, *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en France*, p. 113.

한 식민지 구축’이라는 신념은 장차 프랑스 식민주의의 핵심원리가 될 ‘동화정책(assimilationisme)’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프랑스의 반식민주의는 매우 긴 시간 속에 존재해왔고,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었으며, 추구하는 입장의 발전과 단계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과 개혁, 조정을 제안했다. 프랑스가 ‘제국주의 사회’, 즉 팽창에 의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회가 되었던 1870년부터 1914년까지의 지배적인 경향은 ‘식민지 이념(idée coloniale)’의 발전이었다. 19세기 말 식민지 팽창에 대한 격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식민주의에 대한 반대자들에게도 식민화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다. 반식민주의자들이 실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이 이 시기에 반식민주의가 정치적으로 무게를 지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 반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 체제의 심장부에 다다르지 못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범죄와 파렴치한 비리를 고발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팽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단지 그 방식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이론은 유럽 제국주의 지배와 지배 경험이 피식민지인들의 정치·경제·문화·일상생활 영역에 얼마나 강하게 코드화되어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⁶⁵⁾ 탈식민주의 이론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식민주의 전통과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과 공생 관계 속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공화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반식민주의 전통은 탈식민주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요한 차이는 탈식민주의 이론이 ‘근대성(modernity)’에 대해 더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프랑스 방리유(banlieue)에서의 소요사태와 종교성에 반대하는 법령, 차별, 인종주의는 식민주의의 과거를 상기시키며, 반식민주의 연구의 현재적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불어 과거 프랑스 반식민주의에서 보였던 인종과 문명에 대한 보편적 기준과 근대성에 대한 환상은 공식적 제국주의가 끝난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서구와 제3세계 사이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사회의 다원성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통해 문화적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인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역사가들은 무

65) 앙리 루소, 『비시 신드롬』, 이학수 옮김(휴머니스트, 2006), 561쪽.

엇을 할 수 있을까? 예전의 식민자와 식민지인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의 신뢰감을 회복하는 일은 요원한 것일까? 많은 시간이 요구되겠지만, 서로간의 진지하고 부단한 노력과 이해만이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과거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투고일자: 2011. 7. 14 심사일자: 2011. 7. 28 게재확정일자: 2011. 8. 2〉

주제어 : 식민주의(Colonialism),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 '공화주의적' 반식민주의('Republican' Anticolonialism), '사회주의적' 반식민주의('Socialistic' Anticolonialism), 문명화 사명(Civilizing mission)

〈Résumé〉

L'expansion coloniale et l'anticolonialisme français, 1870-1914 : Entre le colonialisme et l'anticolonialisme

Jae-Won LEE

Colonialisme, anticolonialisme, ces deux mots, inventés à la fin du XIX^e siècle, renvoient à une réalité longue de cinq siècles, de la conquête de l'Amérique à l'écroulement des grands Empires dans les années 1960. Pendant cette période, l'adhésion à l'expansion de l'Europe a été le sentiment dominant avec le 'fardeau de l'homme blanc' et les missions historiques attribuées par la religion ou la civilisation à certains continents. A l'opposé, l'anticolonialisme est également présent dès l'origine, se manifestant au cours des siècles par la critique du sort des Indiens (Las Casas), l'éloge du 'bon sauvage' (Montaigne, Rousseau...) et la dénonciation de l'esclavage par les philosophes du XVIII^e siècle pour qui les colonies sont inutiles, ruineuses et amenées à rompre avec la métropole. Bien que minoritaire, l'anticolonialisme est présent partout dans la société. Il trouve des références dans le marxisme, dans le christianisme, voire dans les valeurs universalistes liées aux droits de l'homme. Il suscite des protestations contre les guerres d'Indochine et d'Algérie par lesquelles s'achève l'âge colonial.

Le présent article a pour but de comprendre l'histoire de l'anticolonialisme français par l'étude comme mouvements idéologiques et pratiques qui assument un rôle continu ou traditionnel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depuis 19^e siècle, l'accent sera mis spécialement sur l'idée et l'activité des personnes qui le réalisent. Nous examinons le caractère et la limite de l'anticolonialisme français en trois catégories: anticolonialisme 'républicain', anticolonialisme 'socialiste', anticolonialisme dans la presse et dans le domaine 'culture'. En particulier, nous montrons que les anticolonialistes qui opposent le colonialisme en raison d'éthique, d'économique, et de politique, rejoignent finalement le colonialisme. Anticolonialistes n'étaient pas totalement contre la colonisation mais seulement critiquaient la violence, les crimes, et la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des indigènes. L'illusion de la 'mission civilisatrice' ou la

'modernisation occidentale' basée sur la suprématie et l'universalisme européens peut aussi se trouver chez les anticolonialistes comme chez les colonialistes.

〈Summary〉

The Colonial Expansion and the French Anticolonialism, 1870-1914 : Between the Colonialism and the Anticolonialism

Jae-Won LEE

Colonialism and Anticolonialism, these two words have long history of more than five hundred years from the conquest of America to the fall of the great Empires in 1960s. During this period, the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European countries was dominant with the idea of 'the white man's burden' and with the historic mission of the propagation of religion or civilization for other continents. Against this, anticolonialism appeared from the beginning of colonialism; the criticism of the destiny of the Indians(Las Casas), the praise for 'good savage'(Montaigne, Rousseau...) and the criticism of the slavery by the philosophers of 18th century, for whom the colonies are useless, are the typical anticolonialisms that drew the severance with the 'mainland'. Although they were minorities, anticolonialism existed everywhere in the society. It found the references in the marxism, in the christianism, and in the universal value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It triggered the protest against the Indochina War and the Algerian War which put on end to the colonial age.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French anticolonialism by studying it as an ideological and practical movement which played continuous and traditional role in French society since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ideas and activities of the people who realized it. We will study the characteristic and the limit of the French anticolonialism, dividing it into three categories: 'republican' anticolonialism, 'socialistic' anticolonialism, and that in the domain of journalism and 'culture'. Especially, you will find that those who opposed colonialism for ethical, economic, and political reason finally ended up joining pro-colonialism. Anticolonialists did not totally against colonialism but just wanted to criticize the violation of the natives or the human rights abuses. The illusion of 'civilizing mission' or that of 'western modernization' based on European supremacy and universalism can be found among the anticolonialists as well as among the colonialists.